



화성시청소년문화센터

발행처 화성시청소년문화센터
주소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 2길 33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나래동 1층
전화 031-8015-3900
팩스 031-8015-0440
홈페이지 <https://hssay.hswf.or.kr>



화성시청소년문화센터



목 차



성 매개 감염증	03
박테리아 감염증	05
바이러스 감염	08
기생충 감염	12
질염	13
칸디다 질염	15
세균성 질염	16
트리코모나스 질염	17



성매개 감염증

성 매개 감염증은 일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을 말한다. 30종류 이상의 성매개 감염병이 있으며 각각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적인 접촉 이외에도 일부의 질환에서는 수혈이나 정맥 주사 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전파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성관계를 하든 두 사람 모두 성 매개 감염증에 걸릴 수 있다. 성 매개 감염증에는 약간 불편하긴 해도 치료가 가능한 감염증이 있는 반면, 통증이 심하고 그 후유증이 영원히 남는 감염증도 있다.

감염증에 대해 알아야 할 상식

- ✓ 치료 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도 있다.
- ✓ 몇 번이고 같은 병에 걸릴 수 있다.
- ✓ 때때로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다른 병과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증도 있다. 의사의 검진이 확실히 필요하다.
- ✓ 구강, 항문, 질 성관계를 통해 감염증에 걸리거나 감염증을 전염시킬 수 있다.
- ✓ 감염된 사람과의 성적인 접촉은 물론 그 사람의 궤양이나 물집, 돌기, 무사마귀, 입이나 코의 점막, 피부에 닿았을 때도 병에 걸릴 수 있다.
- ✓ 감염된 주사기나 주사침, 문신 바늘, 바디 퍼퍼싱이나 주얼리 퍼퍼싱, 바늘, 레이저,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도구, 면도기 등을 같이 사용해도 감염증이 전염될 수 있다.

감염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감염증은 별 증상이 없다. 치명적인 감염증도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를 거치기도 한다. 그래서 누가 병에 걸렸더라도 모를 수 있다. 겉보기에는 감염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통증, 열, 질 분비물, 음경 분비물, 소변볼 때 아프거나 생식기가 쓰리거나 오돌토돌하게 뭐가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상대와 같이 병원에 가 보는게 좋다. **병에 걸렸을 때는 상대의 안전도 꼭 확인해야 한다.**

1년에 한 번, 또는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시작할 때 함께 병원 검진을 받도록 한다. 일반적인 감염증은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감염증의 종류

감염증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데, 대체로 박테리아 감염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한 반면, 바이러스 감염은 치료가 쉽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이 될 수 있다.



박테리아 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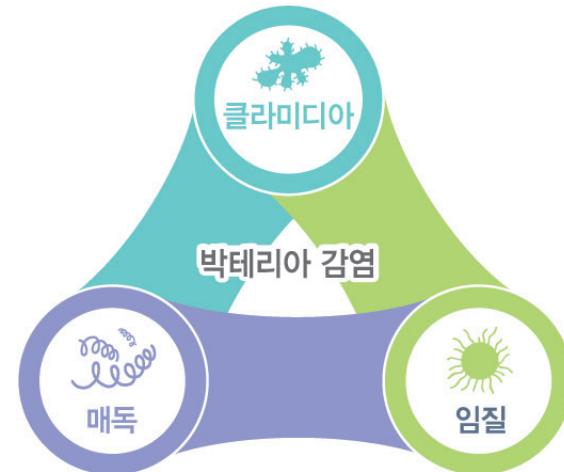


바이러스 감염



기생충 감염

() 박테리아 감염



클라미디아



증상

남녀 모두에서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클라미디아는 전혀 증상이 없기도 하고, 월경기간이 아닌데도 질에서 피가 나오기도 한다. 질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소변 볼 때 화끈거리는 등의 통증이 있거나, 남자의 경우 음경에서 분비물이 나오기도 한다. 클라미디아에 여러 번 감염되면 나중에 아이를 갖는 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치료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성관계를 맺는 상대도 함께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시 다시 감염 될 가능성이 크다.



임질



증상

남성은 요도염 증상 (화농성 요도 분비물, 배뇨 시 통증, 요도구가 빨간빛을 띠는 등), 여성은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 등이 나타난다. 또한 초록색이나 갈색의 분비물, 질 출혈, 골반 깊은 곳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박테리아가 혈류를 타고 관절 같은 몸의 다른 부위들을 감염시키기도 한다. 임질에 걸린 상태와 구강 성관계를 하면 후두염에 걸릴 수 있다. 임질은 출산 시 아기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신 기간 동안 모든 임산부는 임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료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상대도 함께 치료 받도록 한다. 페니실린 G, 세프트리악손, 독시사이클린 같은 항생물질들이 주로 치료제로 사용된다.



매독



매독은 박테리아 감염증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병이다.



6주에서 10주까지 이어진다. 심한 통증, 경성하감(매독균의 침입으로 음부에 생기는 통증 없는 피부병, 단단하고 조그만 종기가 생겼다가 차차 헐게 된다.), 림프절 종대 (겨드랑이나 목, 사타구니 부근 림프절이 부어오른다.)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감염 6주 내지 6개월 후에 발생, 아무런 증상도 관찰되지 않는 잠복기가 이어지다가 2기로 접어들었을 때 발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열, 두통, 권태감, 피부병변(반점, 구진, 농포성 매독진 등), 림프절 종대 등을 보인다.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 감염증이 신경계와 다른 신체기관들을 공격하게 된다. 드물긴 하지만 치료 불가능한 정신질환, 마비,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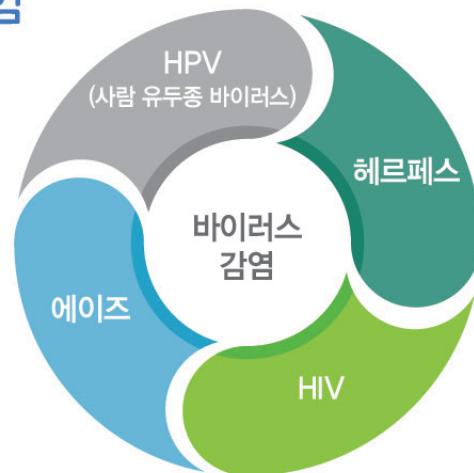


치료

점막이나 궤양을 통해서도 이 병이 전염될 수 있다.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 감염증들은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



HPV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증상

생식기 사마귀, 곤지름이라고도 불린다. 이 바이러스는 생식기 내부나 외부, 목에 매우 전염성 강한 무사마귀(발바닥사마귀)를 만들어 낸다. 남자와 여성 모두가 HPV에 감염될 수 있다. 남성이 HPV에 감염되면 항문암, 음경암, 두경부암, 생식기사마귀가 나타날 수 있다. 이中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생식기사마귀다. 생식기사마귀는 자궁경부암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경관에 가장 위험하다. 만약 남성의 음경 뿌리 부분에 HPV가 걸렸다면, 콘돔을 써도 감염 부위까지 다 덮지 못하기 때문에 콘돔으로도 확실히 예방되는 것도 아니며 상대에게 옮길 수 있다.

치료

2007년 9월에 HPV 예방 백신이 승인되어 남녀 모두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다. 6개월에 걸쳐 3회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 이 예방 백신은 생식기사마귀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헤르페스 (단순포진 바이러스)



증상

이것은 매우 흔하게 퍼져 있는 질병이고, 피부와 점막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대부분 증상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약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자신이 헤르페스를 지니고 있고 그걸 전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간혹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작은 물집이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을 만져서 터뜨리면 매우 전염성 강한 액체가 흘러나온다. 단순포진 물집은 얼굴(심지어 눈이나 입에도 생길 수 있다)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나타난다. 생식기 내부나 외부에도 마찬가지이다.



치료

약을 먹으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를 공격해 빠르게 나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치료되지는 않는다. 바이러스가 언제든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체로 입술이나 입안, 입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는 HSV-1과 관련이 있고 생식기에 생기는 물집은 HSV-2와 관련이 있다. 임신했을 때는 의사에게 꼭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생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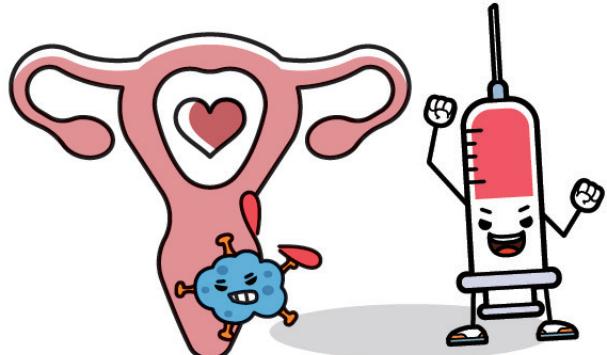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AIDS (에이즈)



에이즈 유발 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되는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집단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층이다.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일으킨다.

에이즈는 질병을 퇴치하는 신체 보호 능력을 파괴하기 때문에 성 매개 감염증 중에서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병이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난 후 면역력이 일정수준 이하까지 떨어지면 에이즈로 발병할 수 있다. 사람들은 HIV 양성인 사람들이 주위에 있거나 그들을 만지거나 혹은 그들이 만진 것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하지만 가벼운 접촉으로는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는다. HIV는 감염된 체액과 그 체액으로 오염된 도구들과 접촉했을 때에만 전염된다.



특징

- 콘돔 없이 질, 구강, 항문 성관계를 하다가 감염된 정액이나 질 분비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다. 질, 입, 직장 내의 연약한 세포막들이 그 바이러스를 흡수할 수 있으며, 성관계 시에 긁히거나 찢어지면 더 빠르게 흡수된다.
- 찢어진 피부, 점막, 눈, 또는 몸을 뚫고 들어가거나 자르는데 쓰이는 도구를 통해 감염된 피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감염될 수 있다.
- HIV 양성인 여성이 모유수유를 하면 아기에게로 바이러스가 전달된다.
- 산모가 예방약을 먹지 않으면 출산 시 HIV가 아기에게 전달 될 수 있다.



치료

특별하게 조합한 약물들을 복용하면 에이즈에 이르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 HIV 양성인 사람은 매일 약을 먹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야한다. 약을 잘 먹으면 혈액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HIV 양성인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기생충 감염

사면발이



증상

사면발이는 음모에 서식하면서 피부 소양증(가려움증)을 일으킨다. 반면, 겨드랑이 털에 기생하기도 한다. 소양증은 사면발이의 타액(침)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며, 감염초기보다 수주 후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 사면발이가 흡혈을 한 피부 부위에는 푸르스름한 피부 변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수일 동안 지속된다. 남자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요도염을 불러올 수 있고, 여자의 경우 냄새가 나는 다량의 질 분비물이나 질 주위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치료

사면발이에 대해서는 살충제인 페노트린(phenoxyrin) 0.4% 분말 가루를 1일 1회, 이틀마다 3~4회 살포하거나 페노트린 로션을 감염된 체모 부위에 반복적으로 발라준다.

질염

질염은 질 분비물, 냄새, 따끔거림, 가려움증, 성관계시 통증, 소변 볼 때의 통증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의 감염 또는 염증 상태를 말한다. 질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감기처럼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막상 걸리면 가렵기도 하고 불편해서 기분이 좋지 않다. 또한 정확히 어떤 증상이 질염인지 헷갈려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지금부터 질염과 헷갈리는 증상부터 질염의 원인, 해결책들을 살펴보자 한다.



질염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사항

✓ '모든 분비물 = 질염' 이 아닙니다!

"질 분비물은 눈물이 이물질을 씻어내는 것이나 피부 각질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수명을 다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오는 질 점막 세포, 이물질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점액, 나쁜 병원균이 번식하지 못하게 산성을 유지해주는 유산균 등의 복합물이다. 자정작용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꽃향기 나는 질을 원하십니까?", 시사인, 2017.6.2.)

✓ 질은 무향이 아니다.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이 정상. 왜냐하면 질에 유익균이 활성 많은 상태로 질이 산성 pH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 질은 똑똑해서 자정작용을 하므로 세정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질염의 종류

	01 칸디다 질염	02 세균성 질염	03 트리코모나스 질염
분비물의 특징	무향의 치즈 형태	생선 비린내가 나며 흰색 또는 회색	노란빛을 띤 초록색 거품이 남
원인	1. 경구피임약 복용 2. 임신 3. 당 섭취 4. 당뇨 5. 항생제, 항암제, 스테로이드제 사용 6. 면역 억제된 상태	1. 짖은 성교 2. 질 세척을 포함한 잘못된 질 세정법	성병으로 분류됨
성교통	심함	약간	심함
가려움	매우 심함	약하게 있음	어느 정도 있음



질염은 알아차리기 쉬울 것 같지만, 증상만으로 정확히 자가 진단하기는 어렵다. 냉변화는 여러 성 매개 감염병의 흔한 증상인데다가, 어쩌면 여러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식기 문제들은 증상이 엿비슷해서 구별하기가 늘 까다롭다. 그러니 생식기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보라. 냉이 변했거나, 성기가 가렵거나, 따끔한가? 의사 찾아가라. 그게 정확하다.

() 칸디다 질염



증상

칸디다 질염의 증상은 흰 치즈 조각 형태의 질 분비물, 외음부의 따끔거림, 가려움증, 성관계시 통증, 소변 볼 때의 통증 등이 있으며 진찰 소견으로는 질 분비물, 외음부 및 질의 홍반, 부종이 있을 수 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등과는 다르게 성 매개 질환은 아니다.



치료 및 예방

항진균제를 사용하면 2~3일 내에 증상이 해소된다. 5% 정도에서 재발성 칸디다 질염이 생긴다. 꽉 끼는 옷 착용 및 합성 원단 의복 착용을 피하고 외음부를 너무 습하지 않게 유지한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여성이라면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균성 질염) 세균성 질염



증상

세균성 질염의 경우 생선 냄새가 나는 질 분비물이 있고, 솜 같은 흰색 분비물 대신 누런색이나 회색의 분비물이 질벽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아주 묽고 회색을 띤 냉이 나오고, 속옷을 하루에 여러 번 갈아입어야 할 때도 있다.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겉옷을 뚫고 풍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생리 전후 또는 성관계 후에 증상이 심해진다.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다.



치료

세균성 질염의 치료는 항생제를 이용한 약물요법으로 이루어 진다. 세균성 질염은 성에 의해 전파되는 성 매개성 질환이 아니므로 배우자가 치료를 받을 필요 없다.



(트리코모나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증상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증상은 국소적인 염증 반응의 정도와 원인균의 수에 따라 다양하다. 심한 악취가 나는 고름 모양의 질 분비물이 넘쳐흐르고, 간혹 외음부 쪽의 가려움증도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균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증상

심한 악취가 나며 고름과 같은 모습의 질 분비물이 있고, 현미경 상에서 움직이는 트리코모나스 원충이 확인될 경우 트리코모나스 질염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찰상 세균성 질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흔한데, 균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질벽과 자궁경부 표면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발적(빨갛게 부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서 '딸기' 모양으로 보일 수 있다.



치료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하게 된다. 95% 에서 한번 복용으로 완치될 수 있다. 성 접촉에 의해 균이 전파되므로 배우자 혹은 성 파트너도 함께 항생제를 복용하여 치료해야 한다.





성 매개 감염증이나 질염을 예방 할 수 있는 방법

성 매개 감염증 중 HIV, 클라미디아균, 미코플라스마균, 임균은 콘돔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HPV와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피부 접촉으로 전달되므로, 콘돔에 가려지지 않은 부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스스로 아무 증상을 느끼지 않더라도, 새로운 상대와 성관계를 맺게 될 예정이라면 관계 초기에 검사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한편, 클라미디아와 임질 검사를 위해서라면 성관계 후 두 주 정도가 지난 뒤 검사를 받고 그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안심할 수 있다.

성 매개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주 검사받고, 위험에 맞게 검사 종류를 고르고, 가급적 콘돔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 질염에 걸리는 원인은 다양하다.

- ✓ 샤워 후 제대로 말리지 않아 질이 습한 상태 일 때
- ✓ 꽉 끼는 하의를 자주 입을 때
- ✓ 화학물질이 들어간 향기 나는 휴지나 생리대를 사용 했을 때
- ✓ 대변 보고 휴지로 닦는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잘못 되었을 때
- ✓ 소변을 본 후 너무 세게 닦아서 자극이 되었을 때
- ✓ 생리 중 또는 생리 직 후 질이 취약한 시기일 때
- ✓ 잿은 팬티라이너나 입욕제를 사용 할 때
- ✓ 제대로 씻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 ✓ 파트너가 성매개성 세균을 가지고 있을 때
- ✓ 잿은 성관계나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어 정액 또는 쿠퍼액으로 인해 질의 산성을 중화시켰을 때



위와 같이 질염에 걸리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

[출처]

사진출처

- 2011. 질병관리본부 /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요약본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 병원)
- 2020. 질병관리본부, 성매개감염병 관리지침
- 질의응답 (우리가 궁금했던 여성 성기의 모든 것), 니나 브로크만 · 엘렌스토肯 달
- 질 좋은 책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진짜' 성교육), 정수연
- (십대를 위한 교과서 밖의 성 이야기) 돌직구 성교육, 제인퐁다